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1월 19일(수) 총 2매				
담당부서	자연재난과	담당자	• 자연재난팀장 김형석 ☎440-3351 • 담당자 윤태웅 ☎440-3352	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대설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돌입 · 제설작업 만전

- 제설작업에 장비 210대 투입 준비, 대로 · 언덕길 · 교량 등 제설 집중 -
- 공무원 1천여 명 비상근무, 출퇴근길 교통안전 · 내집앞 눈치우기 당부 -

인천광역시시는 1월 19일 09시를 기해 인천 전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설작업 등을 위한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.

시에 따르면 이날 09시부터 19시까지 인천지역에는 1~5cm(많은 곳 7cm)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, 이번 눈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09시를 전후해 눈이 점차 강해질 예정이다.

이에 따라 시는 출근시간 교통정체 등을 대비해 07시부터 취약구간을 비롯한 전 지역에 걸쳐 제설제를 살포하기 시작했다. 또한, 이날 08시 1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, 시와 군·구 인력 1,054명이 비상 상황근무에 돌입했다.

시는 원활한 제설작업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설차량 등 장비

210여 대, 인력 462명을 투입할 예정이며, 염화칼슘을 비롯한 제설제 1,400여 톤을 살포하는 등 19일 하루 내내 3시간 간격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.

시는 특히, 대로와 언덕길, 결빙구간, 교량 등 취약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만일에 있을지 모를 재난사고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.

정명오 시 자연재난과장은 “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이나 교량과 고가도로, 그늘진 도로 등의 살얼음으로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, 건물 주변의 보도나 골목길에 대한 ‘내 집 앞, 내 점포(상가) 눈치우기 운동’에도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<관련사진>

